우암학원 창학 74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전남과학대학교
CHUNNAM TECHNO UNIVERSITY

光州日報
SINCE 1952

고품격 명품아파트의 기준! 승원펠리체
FELICE
www.승원건설그룹.com

1952년 4월 20일 창간 제22289호 1판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음력 6월 4일 2024년 7월 9일 화요일

영호남 시·도,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 균형발전 공동대응

어제 전북 무주서 '8개 시도지사 협력회의' 열고 공동성명 채택
16개 과제 중앙정부에 건의… "지방시대 열어 대한민국 구해야"

광주·전남·전북·부산·대구·울산·경남·경북 등 영호남 8개 시·도가 수도권 1극체제에 대응하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힘을 모으고, 실질적 지방자치를 위한 공동 행보에 나서기로 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적극적 균형발전 정책과 권한 이양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한 목소리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근 대통령실과 정치권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를 꺼내들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 위기 극복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종부세 세수 전액은 지방 재정인 부동산교부세 재원으로 쓰이는 만큼 종부세 폐지 시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 지자단체들의 재정난에 '빨간불'이 켜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광주시와 전남도 등 영호남 8개 시·도는 8일 전북 무주 태권도원에서 '제18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를 갖고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 지방재정 위기극복대책 마련에 공동 대응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협력회의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한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김관영 전북지사, 박완수 경남지사, 김선조 대구시 행정부시장, 박창환 전남도 경제부지사, 정성현 경북도 지방시대 정책국장이 참석했다.

8개 시·도지사는 지방정부가 실질 권한을 갖고 지역의 발전을 주도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진정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공동 협력과제 8개, 지역균형발전과제 8개 등 16개 과제를 공동성명서로 채택했다. 이를 중앙정부에 건의키로 합의했다.

주요 공동 협력 과제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지역 기후대응기금 국가 지원 ▲저출생 대응 협력 및 재정 지원 확대 ▲지방재정 위기극복대책 마련 공동대응 ▲개발제한구역(GB·그린벨트) 지역전략사업 대체지 지정 요건 완화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개선 ▲지역기반 광역비자(R-비자) 제도 건의 ▲섬발전촉진법 개정안 국회 통과 등이다.

지역균형발전과제는 ▲울산~양산고속도로 건설 ▲전주~대구고속도로 건설 ▲울산~전주 간 고속철도 연계 ▲영호남 내륙선(전주~김천) 철도건설 ▲전라선(익산~여수) 고속철도 전 노선 신설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화철도 건설 ▲거제~가덕도신공항 연결철도 건설 ▲사천 우주항공선 철도 건설 등으로, 8개 시·도는 중앙정부에 16개 과제 시행을 공동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지난해 제17회 영호남시도지사협력회의에서 김영록 전남지사가 제시한 '영호남 경제공동체' 연구 추진에 따른 공동 연구를 진행, 세부 추진전략과 초광역 협력프로젝트를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 '김대중 100년 특별 평화회의'(전남)와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전남), '제15회 광주비엔날레' 등 시·도별 주요행사 15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상호 지원과 참여도 약속했다.

이날 지방재정 위기극복 대책 마련 공동대응 등을 건의한 강기정 광주시장은 "국토의 11%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 취업자의 51%가 살고 있고, 우리나라 총수출의 72%가 몰려있다. 지역에서는 이러한 쏠림 현상을 해결하고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며 "특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회복지사업이나 국가사업에 대한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어 지방교부세율 5% 인상, 종합부동산세 및 부동산교부세 폐지 반대, 지방재정 확충 없는 세제개편 반대, 국가시설에 대한 지방비 부담 철회 및 국고보조사업 분담률 인하 등을 제안하고, 공동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영남과 호남 간 긴밀한 유대와 협조체제 유지 등 상생협력을 위해 1998년 구성됐으며, 영호남 친선 교류, 민간단체의 영호남 협력사업 지원 등 영호남 상생협력 사업을 펼치고 있다.

/김지을·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국민의힘 대표 후보들이 8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차 전당대회 광주·전남·전북·제주 합동연설회에서 손을 잡고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상현·한동훈·나경원·원희룡 당 대표 후보.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전당대회 캐스팅보트' 호남 표심 잡아라
국힘 당권 주자들, "호남 발전" 한목소리

광주 DJ센터서 합동연설회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이 권역별 합동연설회 첫 일정으로 8일 광주를 찾아 호남에 대한 애정을 표했다. <관련기사 3면>

특히 최근 각종 선거에서 광주·전남에서 의미있는 득표율을 보인 만큼, 국민의힘의 '호남 전당대회 열전'은 더욱 뜨겁게 전개될 전망이다.

이날 국민의힘 당 대표·최고위원·청년 최고위원 후보자들은 각자 광주·전남·전북·제주와의 인연을 내세우며 호남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전북·전남·제주 합동연설회'를 열고 지역 당원들에게 한 표를 호소했다. 지역 당원들은 소나기가 쏟아지는 궂은 날씨에도 연설회에 참석해 각자 지지하는 당권 주자들에게 열띤 응원전을 펼쳤다.

앞서 지난 2022년 치러진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가 광주 12.72%, 전남 11.44%의 득표율로 역대 보수 후보 중 최고치를 얻으면서 이날 연설회는 그 어느 때보다 열기가 뜨거웠다. 국민의힘은 '보수 불모지'로 평가받던 지역에서의 득표율이 오르고 당원도 늘면서 불모지 내에서의 진전 가능성을 엿본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합동연설회의 정견발표는 청년 최고위원 후보, 최고위원 후보, 당 대표 후보 순으로 진행됐다. 당 대표 후보 정견발표는 윤상현·한동훈·나경원·원희룡 후보 순으로 이어졌다.

당 안팎에서는 전통적인 지지 기반인 영남과 수도권 등지에서 전당대회 당선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분석하고 있지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호남과 충청에서도 캐스팅보트를 쥘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연설회에서도 당권 주자들과 최고위원 후보들은 목소리를 높여 호남 발전을 약속하기도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광주를 시작으로 10일 부산에서 경남·부산·울산, 12일 대구에서 대구·경북, 15일 천안에서 대전·세종·충북·충남, 17일 서울에서 서울·인천·경기·강원 합동연설회를 차례로 열 계획이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尹, 나토 정상회의 참석 출국…"장마 피해 철저 대비를"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이번 장마에도 피해 대비를 철저히 하라"고 참모들과 내각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미국 방문 일정을 앞두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새벽 경북 등에 발생한 호우 대처 상황을 보고받고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 등으로 기존 예측을 넘어서는 기상이변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순방 기간 국정 공백이 없도록 현안을 빈틈없이 챙겨 달라"고 한 총리에게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이날 출국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팔도 건축기행 - 전주 전라감영 ▶11면
파리 올림픽 - 사격, 금빛총성 다시 울린다 ▶18면
굿모닝 예향 - 쪽빛 되찾은 정관채 염색장 ▶22면

사랑과 감사의 70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4]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